

‘국내외 최근 가전시장 동향’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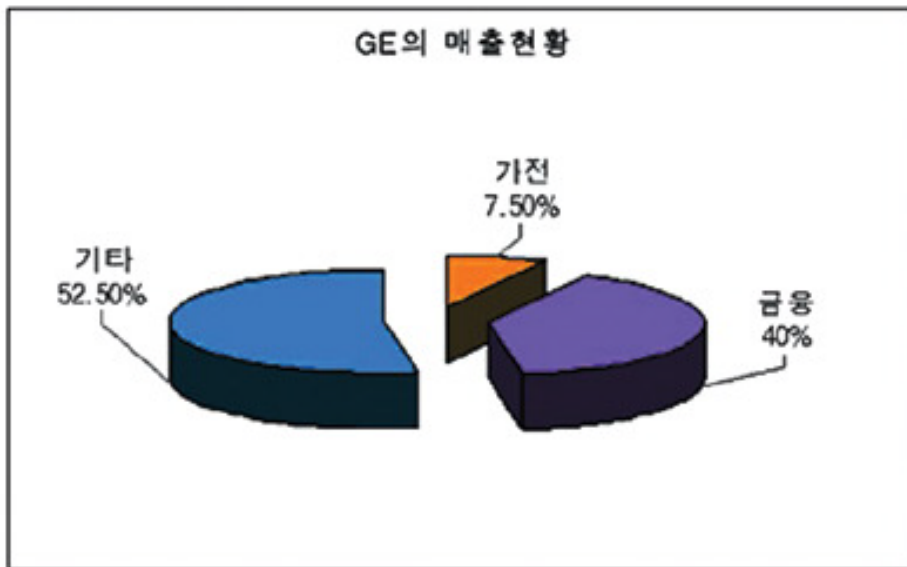
출처 : 전자정보센터



1. GE (General Electric) : 미국

GE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여 그것을 제품화한 기업으로도 유명하고, 잭 웰치의 경영관으로도 유명한 기업이다. 100년이 넘는 역사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1위로 선정되기도 했던 GE는 세계의 가전시장을 리드해 온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아시아업체들의 선진으로 가전시장의 매출부문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잭 웰치 회장이 고부가가치의 하이테크, 서비스 산업으로 기업방향을 전환하면서 가전부분의 매출은 기업 총 매출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약화되었다.

[그림] GE의 가전부분의 총 매출 비중



자료 : GE, R&DBiz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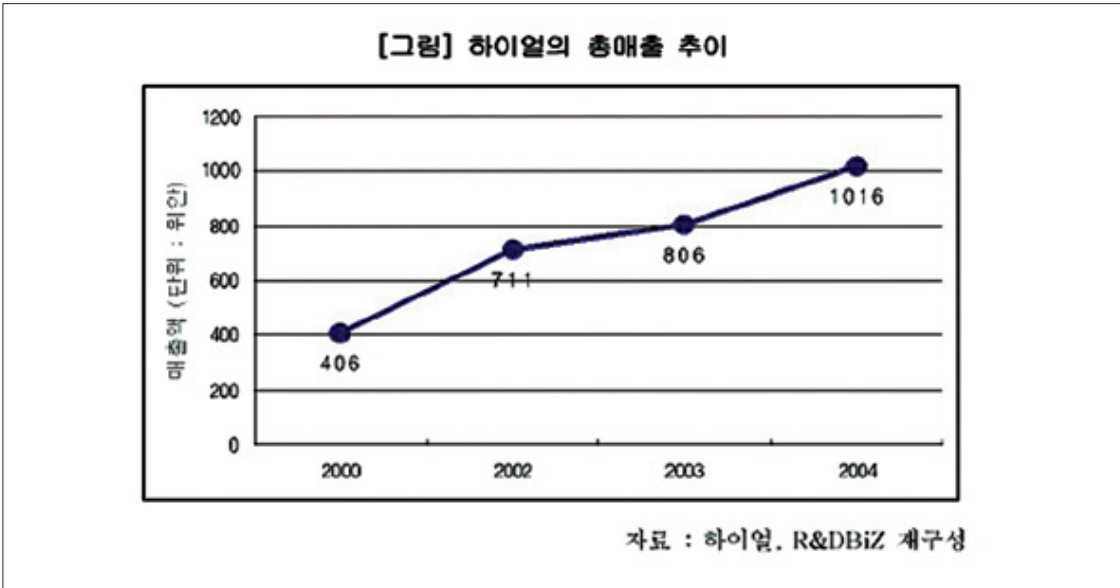
2. 월풀 (Whirlpool Corporation) : 미국

세계적인 가전용품 제조 및 판매업체로서 미국 최대의 가전업체이다. 월풀, 키친에이드(KitchenAid), 로퍼, 에스테이트, 보크넥트, 이니스, 레이든, 잉글리스, 브래스탬프, 컨설 등의 여러 브랜드로 생산되는 제품을 170개국에 판매하고 있다. 또 '켄모어'라는 브랜드로 여러 가전용품을 판매하는 시어스로빅앤드컴퍼니(Sears, Roebuck and Co.)의 주요 공급업체이기도 하다. 얼마 전 메이텍과 합병을 하면서 현재 세계 가전업계 1위인 스웨덴의 '일렉트로룩스'를 제치고 매출규모 18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백색가전(백색가전 부문 1위) 업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월풀이 메이텍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LG전자, 삼성전자, 하이얼 등의 주요 아시아 가전업체들이 창의적인 디자인, 첨단기능, 저렴한 가격, 홈디포-로우스 등의 주요 유통업체와의 제휴를 앞세워 그 동안 미국업체가 독점해왔던 미국 백색가전 시장을 점차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3. 하이얼 (Haier) : 중국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 브랜드' 조사에서 중국기업으로서 유일하게 뽑힌 하이얼은 중국 최대의 가전업체이다. 중국시장에서 2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특히 백색가전 부문에서는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이 1000억 위안(한화 약 13조원)을 돌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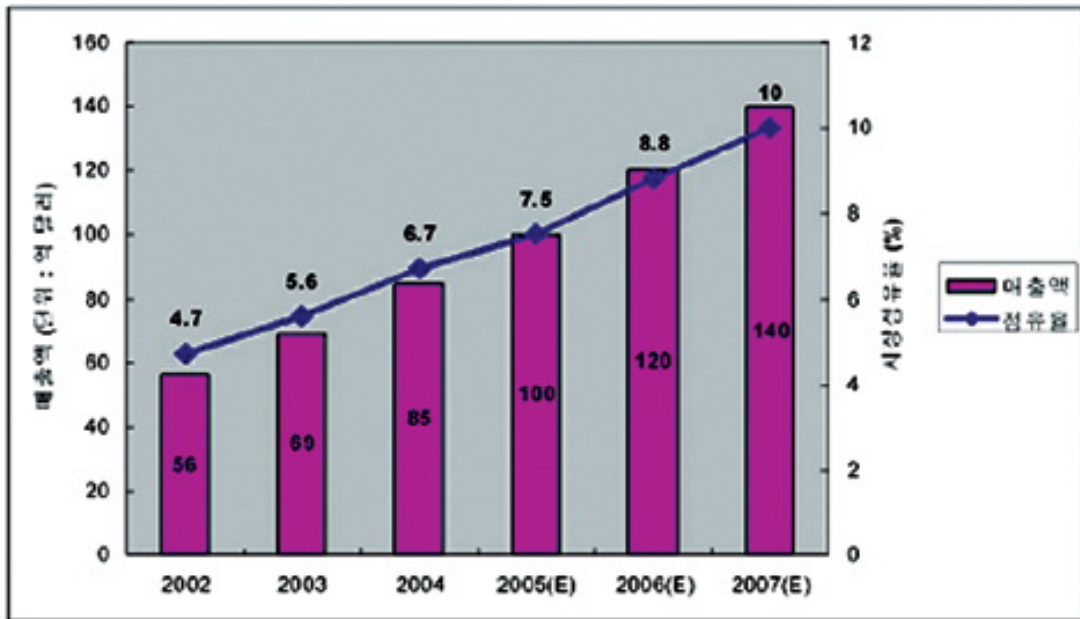
최근 하이얼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나섰다. 하이얼의 최대 강점은 가격경쟁력이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중국 제품에 관한 인식과 삼성, LG가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진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LG 전자 : 한국

LG전자는 지난 4년간 연평균 22%의 고속성장을 거듭하여 지난 2004년 85억 달러의 매출로 세계 3대 백색가전 업체가 되었다. LG전자는 현재 스웨덴의 일렉트로룩스와 미국의 월풀에 이어 세계 3위 업체이다.

LG 전자는 2005년 100억 달러 , 2006년 120억 달러 , 2007년 14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백색가전을 세계적 명품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생산 거점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중고가 브랜드 전략으로는 수익성 확대에 한계가 있고 해외 시장의 매출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LG전자는 헝가리와 폴란드 중 한 곳에 백색가전 생산기지를 건립해 인도 중국 태국 멕시코에 뻗어있는 생산 네트워크를 유럽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핵심 기술 연구소와 해외 특성화 연구소를 잇는 글로벌 연구개발(R&D) 연계망을 활성화해 세계 정상급 제품을 대거 개발하기로 했다.

[그림] LG전자 백색가전 연도별 매출 추이



자료 : LG전자, R&DBiz 재구성

특히 고급 프리미엄 가전제품 비중을 현재 55% 수준에서 2006년에는 65%로 끌어올려 북미 유럽지역 고급수요자를 적극 공략키로 했다. 지난 2004년의 매출증가율은 전년대비 22.6% 성장했고 영업이익률 5.1%를 달성했다.